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②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르네상스 명작 즐비...베네치아 '문화 파워'의 토대



베네치아=정성필 E투코리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 세계 최고(最古)의 비엔날레,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의 국제영화제, 곤돌라와 수상가옥이 연출하는 이국적인 풍경...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만(灣)에 형성된 베네토(Veneto)주의 주도(州都) 베네치아(Venezia)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인구 30만이 넘지 않는 작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문화의 힘이라는 설명이 가장 그럴 듯하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갖고 있는 문화적 힘의 튼튼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20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e dell'Accademia)이다.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를 거쳐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현대미술 수집의 중심에 있는 볼리는 구겐하임 재단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다.

파리의 루브르-오르세-퐁피두,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테이트 모던 갤러리, 마드리드의 프라도-레이나 소피아 등 유럽 문화도시들이 잘 짜여진 중세-근대-현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치아 역시 문화도시의 구색은 갖춘 셈이다.

이 밖에 대운하 어귀의 산타 마리아 살루테 성당(Basilica di Santa Maria della Sallute)이나 산 마르코 광장(San Marco Piazza) 등이 도시의 볼거리를 풍부하게 한다.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올해로 200주년을 맞은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보다 2년 앞선 1807년, 로마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1세에 의해 세워졌다. 미술관의 전신은 베네토주 의회에 의해 1750년 설립된 건축·조각·미술학교다. 로마와 밀라노, 볼로냐의 교육기관과 함께 당시의 주요 예술학교였던 것이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밀라노, 피렌체, 볼로냐 등 이탈리아 미술관의 특징인 교육기관과 미술관의 복합구조가 베네치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시실은 2개 층의 24개 명성에 비해 다소 조라한 구석이 있다. 게다가 건물 내부도 다소 낡고 허술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입장료가 다른 유명 미술관에 비해 약간 저렴하다. 하지만 르네상스 미술에서 베네치아 화풍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술관의 외적인 면은 그냥 지나쳐도 좋을 듯하다. 티치아노, 조반니 벨리니, 베로네세, 틴토레토, 젠틸레 벨리니 등 베네치아 화가들의 '사원'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예술학교 1807년 미술관으로 개관 18세기 베네치아 걸작들 주로 전시 수준별 미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베네치아 미술은 가깝게는 이탈리아 내의 치마부예, 조토, 보티첼리 등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으로 상징되는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 미술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지만, 독자적이고도 수준 높은 작품으로 르네상스 미술사에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부 화가들의 그림이 '조각작'이라면, 베네치아 화가들은 '회화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야코포 벨리니와 큰 아들 젠틸레 벨리니, 아우 조반니 벨리니 등 베네치아 미술을 대표하는 벨리니 가문 화가들은 피렌체 화가들이 그랬던 영웅적이고 서사적인 주제보다는 목가적 풍경의 자연이나 일상의 소재들을 주로 그렸다. 이같은 표현양식은 이들의 제자였던 티치아노, 조르조네 등에게서도 나타나며 베네치아 미술의 특징이 됐다. 베네치아 화가들의 작품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선 규모가 크지 않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나와 베네치아 시내의 산 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등으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은 미술전문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가이드를 동반한 수준별 코스 '아카데미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술의 첫 걸음' 등 초동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15세기 회화에 나타난 베네치아 사회'(중·고등학생), '벨리니에서 티치아노까지: 베네치아 르네상스'(중·고등학생), '황금시대에서 18세기까지 세기별로 본 베네치아 미술'(성인)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camus@kwangju.co.kr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을 대운하 쪽에서 본 모습. 르네상스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베네치아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키운 구겐하임 조카 페기 구겐하임 소장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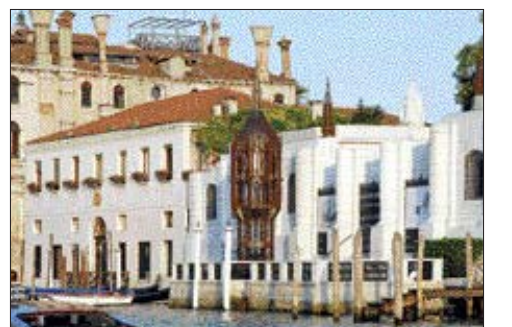
■ 베네치아 구겐하임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베네치아 미술의 중세를 책임지고 있다면, 현대 미술의 한 축은 구겐하임 미술관에 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창립자인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1898~1979)의 소장품으로 전시 목록을 채우고 있는 베네치아 구겐하임은 2년마다 도시를 화려하게 하는 비엔날레와 함께 고도(古都)에 생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페기 구겐하임이 사망하기 전 30년 동안 살았던 건물 팔라초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Palazzo Venier dei Leoni)를 개조해 그녀가 사망한 1년 후에 미술관으로 개장했다. 그녀의 소장품은 뉴욕의 구겐하임 재단에 기증됐으며, 그 중 일부가 베네치아로 다시 건너왔다. 미술관의 공식 명칭이 '페기 구겐하임 소장품(The Peggy Guggenheim Collection)'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1750년대에 이탈리아 건축가 로렌초 보스체티(Lorenzo Boschetti)가 지은 이 건물은 베네치아 시내를 가로지르는 대운하와 인접해 있다. 미술관에는 페기 구겐하임이 국제 미술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왔던 '액션 페인팅'의 대가 잭슨 폴록을 비롯한, 파블로 피카소, 후안 미로, 르네 마그리트, 막스 에른스트,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유명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금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꾸준히 젊은 작가를 발굴해 비엔날레를 통해 소개한 페기 구겐하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녀는 베네치아에 동지를 틀기 직전인 1948년 처음으로 자신의 소장품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소개했다. 막대한 유산을 가진 재산가였지만 미술에 투신했던 그녀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은 미술관 벽의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대운하에서 본 베네치아 구겐하임 미술관 전경. 뉴욕이나 밀바오 등 다른 도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페기 구겐하임이 직접 살았던 곳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s changing future.(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의 내부 모습. 전시는 학교로 사용되던 1층과 갤러리였던 2층, 두개 층의 24개 전시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전기보일러·난방기' (Electric Boilers/Heating) with various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보험' (Insurance) services, including fire and life insurance, with a list of agents and contact details.